



안복현 회장

협회 2003 총회

- 2002년도 협회활동 보고과 2003년 사업계획 발표
- 회장에 제일모직 안복현 사장 재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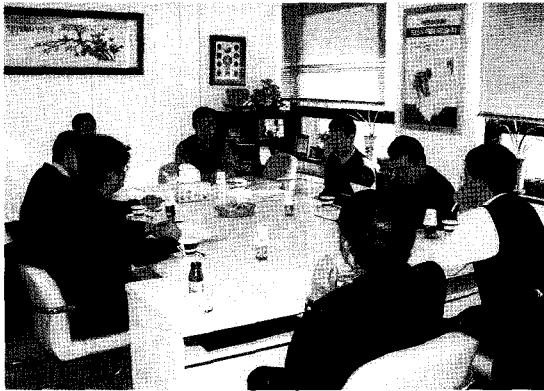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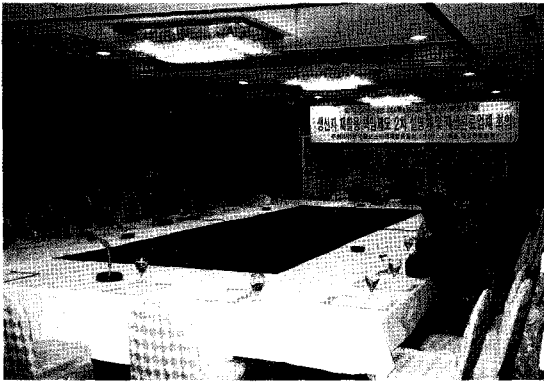
협회는 지난 10일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일모직 안복현(安福鉉, 54) 사장을 협회장으로 재선임 했으며 2002년 협회 활동결과 보고와 함께 2003년 사업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협회 회장에 선임된 안회장은 삼성전자 전무이사, 삼성항공 대표이사 부사장 등으로 재직했으며, 2001년부터 제일모직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금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따라 협회는 기존의 사업과 함께 스티로폼 재활용 공제조합업무를 수행기로 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설명회

-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재활용공제조합 참여 유도
- 제주, 김해, 구미, 대전, 광주, 강릉, 청주 등에서 설명회 개최



금년 1월부터 스티로폼 포장재의 사용자 및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스티로폼 포장재를 재활용토록 규정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당 협회에서는 재활용 공제조합의 운영과 함께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생산자의 책임을 대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인 농수축산물상자 제조업체, 식품 및 기타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체, 농수축산물제품(자가 상표 부착) 판매업 및 수입업체, 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설명회를 제주(1월 17일), 경남 김해(1월 22일), 경북 구미와 대전(2월 11일), 광주(2월 14일), 강원도 강릉(2월 18일), 충북 청주(3월 7일) 등에서 개최하고 공제조합에 참여를 유도하였다.